

### 3/15(화) 스가랴 묵상 24

#### 스가랴 13:1-9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3장의 말씀은 스가랴 12-14장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속한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죄와 악한 무리를 해결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나라가 완성될 날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언제입니까?

#### 죄와 더러움을 씻으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애곡하고 회개에 이르게 한다고 묵상했습니다(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양떼가 찌른 목자는 두 가지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하고 우상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1-2절,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서 ‘죄와 더러움 가운데 있는 대상’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죄를 받는 대상이 그의 택하신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1절의 ‘열리리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한번 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은혜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본문 2절은 그 날에 하나님께서 ‘우상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미 그들의 상태가 멸망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완전한 제거가 성취될 것입니다(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눅 18:18-19,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계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지만 본문 3-6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로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재림 이후에는 이같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절은 일부 사람이 여전히 여호와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4절에서는 선지자의 상징인 털옷 조차 입지 않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가장 부주의한 자라도 그러한 거짓 선지자의 기만 행위에 속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5절은 거짓 선지자들은 점점 더 자신의 실체를 감추게 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농부라’하며 거짓말을 일삼게 됩니다. 마지막 6절에서 어떤 이들이 가진 ‘상처’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중

교 의식 중에 생긴 자해한 상처들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구약에서도 거짓 예언자, 우상숭배자를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되었습니다(왕상 18:28,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 하나님의 백성의 연단과 구원

스가랴 13:7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자신의 수난 전에 인용하신 말씀입니다(막 14:2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즉 스가랴 13장 7-9절은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인해 그의 양들이 흩어지게 되지만 결국은 큰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은 일회적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그러한 고난 중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수난을 끝이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즉 ‘그 작은 자들에게 그의 손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9절의 삼분의 이와 삼분의 일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9절의 말씀대로 일부가 ‘불 가운데 던져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갈 종말의 시기와 영적 환경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한 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중간 시기에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종말론적인 시기와 상황 속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영적 환경은 여전히 악한 영과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환난과 고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자주 우리에게 영적 전투와 군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이 시대의 악한 사상과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무장하고 나아가 것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진리로 지키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언제나 중보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상황을 두려워하고 영적 전쟁의 패배자와 같이 나아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박해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전세계에 박해 받는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공산권과 이슬람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중보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드베다니 2 구역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오만 김데이비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